

“취업준비 비용에 식비까지 무섭게 올라”...141만 자취생 아우성

#1. 서울 신촌 대학가 원룸에서 자취하는 취업준비생 김모(24)씨는 최근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학원비와 스타벅스 카페 비용을 제외하면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넉넉지 않다. 요즘은 즉석밥과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컵라면이나 3분 카레 등을 자주 먹는다. 김씨는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면 식비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며 “몇백원 오르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2. 서울 노원구에 혼자 살고있는 대학원생 장모(24)씨도 최근 들어 “퍽퍽한 서울살이”를 더 실감하는 중이다. 4년 전 서울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같은 용돈으로 살고 있지만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용돈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그는 “한 끼만 사 먹어도 기본 1만원 정도는 하니 최대한 쌀 걸 먹으려고 하는데, 학식도 꽤 많이 비싸졌다”며 “라면도 예전보다는 많이 비싸진 것 같다”고 푸념했다.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까지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서민 가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나 먹거리 물가 상승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대 청년가구에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라면 가격 인상까지 예고된 상태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라면과 스낵 등 식품업계는 최근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라면은 9~11%가량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라면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조미료 ‘미원’, 편의점용 닭가슴살, 요구르트, 치즈 등의 가격은 이달 초 인상됐다. 농산물 가격 급등세에 이어 원유 가격 인상을 위한 유가공업체와 낙농 단체 간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어 유유 가격 역시 0당 300~500원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자 서민 실생활에 밀접한 라면, 우유 등 먹거리 가격도 상향등을 켜 것인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대다수인 20대 1인 가구에 직격탄이 떨어진 모양새다.

식품업계, 라면 가격 9~11% 인상 예정
외식 물가 상승률 8.8%...30년 만에 최고치
20대 이하 1인 가구 가장 많아...약141만명
취준생·사회초년생들, 물가 상승 직격탄
“같은 용돈으로는 더 이상 생활 불가능”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년보다 7.9% 증가한 716만6000가구다. 이 가운데 20대 이하가 19.8%(약 141만800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찍이 외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해외에서는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이란 신조어가 등장해 주목받았다. ‘런치(점심)’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합친 단어인데, 외식 의존도가 높은 청년 1인가구에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8.8%로 1992년 10월(8.8%)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 서민 음식이라 할 수 있는 품목들은 하나같이 가격이 오름세다. 소비지원 가격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기준 김밥의 평균 가격은 3046원으로 전월(2969원)보다 2.59% 상승했다. 삼겹살(200g) 가격은 1.7% 된 1만8364원, 김치찌개백반은 1.0% 오른 7500원, 냉면(1만500원)과 삼계탕(1만5462원), 갈국수(8423원)도 0.5~0.7% 올랐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빡빡하다”는 표현을 넘어 “버티기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최모씨(26)는 “요즘은 분식 메뉴 두 개를 주문해도 2만원 정도 나온다. 예전에 분식은 가볍게 먹는 메뉴였는데 새삼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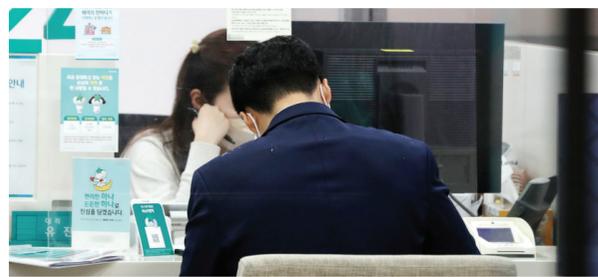
며 “직장생활을 하면서 밥을 항상 사 먹어야 하는데, 밥값으로 하루에 몇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는 것 같아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한 대학교 기숙사에 사는 대학원생 황모(24)씨는 “요즘은 뭐 먹은 것도 없고 평소처럼 썼는데 카드값이 100만원씩 나온다. 이 정도 먹고 사고하는데 이전에는 50만원 정도 들던 게 요즘은 70~80만원은 넘게 든다. 대학원생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빡빡하다”고 푸념했다.

사회초년생인 이모(24)씨는 “점심 저녁을 둘 다 사 먹게 되면 생활비가 부족할 지경이라 저녁은 되도록 부모님이 챙겨준 반찬 위주로 챙겨 먹는다”며 “추석에 전과 갈비점을 챙겨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오늘 점심에 약속이 있어 양식점에 갔는데 메뉴 2개에 5~6만원 정도 나오더라. 이 정도 물가가 계속되면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걱정했다.

뉴스스

자산은 찢끔, 부채는 켑충...20대 평균빚 3550만원



#1. 김지원(29)씨는 지난해 초봉 6000만원의 외국계 반도체 기업에 취업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고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 매달 100~200만원씩 총 2500만원을 여러 종목에 투자했지만 수익률은 -40%. 김씨는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깨닫고,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렸다. 시드를 모으기 위해 파킹통장에 저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 증권회사에 다니는 이모(29)씨도 남 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위기감을 느껴 모아둔 돈 4000만원에 6000만원을 대출 받아 총 1억원을 가상화폐(가상자산)에 투자했다. 현재 -50%를 밀도는 수익률로 대출금에도 손실이 발생했다.

2000만원대 초반 수준에 불과했던 청년층 평균 부채가 4년 만에 3000만원대 중반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은행을 찾는가 하면, ‘한방’을 노리고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에 손을 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고 국내외 증시는 폭락하면서 자칫 빚더미만 남게될까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9세 이하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17년 2393만원, 2018년 2591만원, 2019년 3197만원, 2020년 3479만원, 지난해 355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17년 7099만원에서 지난해 8808만원으로 늘어 20

20대 가구주 평균 부채·자산 대비 부채 비율 꾸준히 상승
증권투자·금융자산투자 목적의 대출도 증가...빚투 늘었다
‘거주주택 마련’→‘전월세 보증금 마련’ 대출 용도 변화도

대가 가구주인 가구보다 상승 폭은 더 크다. 하지만 평균 자산 상승폭과 비교해서 보면 청년층의 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전체 가구 평균 자산은 이 기간 1억2140만원 증가했다. 빚이 2000만원 가까이 늘었지만 자산이 1억 넘게 상승한 셈이다. 반면 20대 가구는 빚이 1200만원 가량 늘어나는 동안 자산이 약 20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29세 이하 가구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7년 47.7%에서 2021년 56.1%로 8.4%p 올랐다. 전체 가구는 2017년 63.5%에서 2021년 63.6%로 불과 0.1%p 상승했다.

청년들의 대출 증가세에는 주거 불안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을 빌리는 사유를 보면 집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은 줄어든, 월세 보증금이나 투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났다.

가구주 연령계층별 신용부채 비율을 보면, 29세 이하 신용 대출 용도는 2017년 ‘거주주택 마련’이 49.3%로 가장 높았다가 지난해 26.1%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전월세 보증금 마련’의 경우 2017년 36.9%에서 지난해 66.6%로 대폭 상향됐다.

29세 이하 담보부채 역시 2017년에는 ‘거주주택 마련’은 49.3%를 차지했지만 2021년에는 26.1%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반면 증권투자, 금융자산투자 등이 집계되는 신용 대출의 ‘기타 용도’ 등은 그 비중이 2017년 14.8%에서 21.6%로 증가했다.

빚을 내도 거주지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를 위한 대출이 늘어났으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며 ‘빚투’에 나서는 청년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미 집값이 사회초년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고, 청년층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부동산 영끌이나 주식, 코인 빚투에 나서는 청년들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빚을 떠안게되는 청년들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청년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마련 중이다. 최

근 투자실패 등으로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해주고 재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밝혀 큰 파장이 일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의 일환으로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주식·암호화폐(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실패를 겪은 청년층이 신속하게 회생·재기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신청 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청년들이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고 위험한 투자로 나서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집을 사야 하는 시기에 가격이 비싸 사지 못하니 빚투 등 위험투자에 나서게 되는 것”이라며 “또 최근 집값이 급등하거나 빚을 내서 집을 일단 사 놓고 집값이 오르길 기대하는 상황이 된 것이 청년 부채 증가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영끌이나 빚투를 통해 생긴 빚을 탕감해주는 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미래 소득을 평가해 감당할 수 있는 빚만 내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소득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안심전환대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정한 청년의 경우 일자리를 구하고 난 뒤에 이자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